

# 백제! 세계를 품다 시간을 품다

**‘제62회 백제문화제’  
24일~10월 2일 공주·부여**

**충남** 막대한 영토로 동북아시아를 호령한 고구려, 고대국가로서의 출발은 늦었지만 결국 삼국을 통일한 신라와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우아하고 세련된 문화를 찬란하게 꽃피운 백제의 역사와 백제인의 기상을 다시금 느껴볼 수 있는 ‘제62회 백제문화제’가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8일간, 전야제가 열리는 9월 23일까지 포함하면 장장 9일간 백제의 옛 수도였던 충남 공주시와 부여군 일원에서 막이 오른다.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지난해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만큼 ‘백제! 세계를 품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백제문화제는 여느 해보다 규모가 크고 프로그램은 더욱 다채로워졌다. 국내 2대 문화제답게 9일간 준비된 프로그램만 무려 110개가 넘는다. 다양하고 다채롭다는 표현으로도 모자랄 정도. 공주와 부여 축제장에 발을 들이거니와 돌아갈 때까지 내내 남치는 흥과 신명, 즐거움 속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웅진성퍼레이드의 한 장면. <사진제공=공주시>

◇백제의 마지막 수도, ‘사비’에서 시작되는 백제 문화로의 여정=23일 오후 8시 부여군 부여읍 구드래 금강둔치에서는 전야제가 열린다. 전야제의 절정은 ‘한하와 함께하는 백제한화 불꽃쇼’. ‘하늘나비, 백제를 따라 금동대향로를 날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불꽃쇼는 강 건너편에서 시작해 금강을 건너와 주무대까지 이어진다. 강 저쪽과 이쪽, 상공에서 다양한 모양으로 작렬하는 불꽃은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도 남는다. 불꽃과 폭음만 작렬하는 게 아니다. 동시에 레이저, 특수조명, 음향 등이 어우러진다. 불꽃의 모양과 색채를 기하학적으로 배치하고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불꽃쇼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나비가 날아가다 다양한 백제의 모습을 보고 백제인을 만나며, 그들이 꿈꿔왔던 이상향, 이야기들이 금동대향로에 담겨 있었음을 다양한 음악과 이야기로 표현한다. 불꽃놀이 규모와 시간만 따져도 중부권 최대. 이날 전야제에는 또 가수 케이윌·다비치·조항조·유하주 등이 무대에 올라 축하공연을 펼친다.

난해 문양연구를 통해 종신에 새길 문양을 완성하고 올해 초 밀랍 작업을 거쳐 주조환경이 가장 좋은 지난 5월 거푸집에 쇠물을 주입, 완성도를 높였다. 백제대종 중 가장 백제 전통 양식인 하양식(下昞式) 처마를 갖춘 팔작(八作)형 전통 목조건물로, 높이 10.84m, 면적 65㎡이다.

◇무령왕이 잠들어 있는 ‘웅진’, 제62회 백제문화제의 종착점=23일 오후 7시 공주시 신관동 금강신관공원에 마련된 주무대에서는 충남고향악단의 특별콘서트와 가수 휘성·박구윤의 축하공연, 불꽃놀이 등이 개막에 앞서 분위기를 한껏 달궈 예정이다.

개막 당일인 24일 오전 11시에는 지난 1963년 1월 21일 사적 제13호로 지정된 송산리 고분군에 포함된 ‘무령왕릉’에서 백제 22대 문주왕(文周王), 23대 삼근왕(三斤王), 24대 동성왕(東城王), 25대 무령왕(武寧王) 등 4대왕 추모제가 거행된다. 무령왕릉은 현재까지 무덤의 주인공이 정확하게 밝혀진 몇 안 되는 고대백제의 무덤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피장자가 백제의 역사를 중흥시킨 훌륭한 군주라는 점에서 주목받는 대상이다. 무덤 안에서는 금으로 만든 관장식, 용과 봉황이 장식된 큰 칼 등 총 4600여 점에 이르는 다량의 유물이 발굴됐으며 이 중 12종목 17건이 국보로 지정될 만큼 소중한 문화재가 됐다. 유물들은 국립공주박물관에 전시돼 있다.

한편 지난해 첫선을 보인 ‘웅진판타지아’가 이번에도 대표 프로그램으로 재등장한다. 공산성과 금강,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 그대로를 공연의 배경으로 사용하는 게 특징이다.

공산성과 금강의 건축물, 실경을 활용해 웅진백제의 스토리텔링과 공연예술을 결합한 환상적인 실경공연을 연출한다. 금강변 금강신관공원 앞에는 미르섬은 객석이 되며 유유히 흐르는 금강에는 황포돛배와 유등을 띄워 연출된 환화한 분위기에다 화려한 의상과 함께 어우러지는 아름답고 강렬한 선율이 울려 퍼진다. 작년 초연보다 업그레이드 된 웅진판타지아는 백제시대의 웅장함, 유장함을 느끼고도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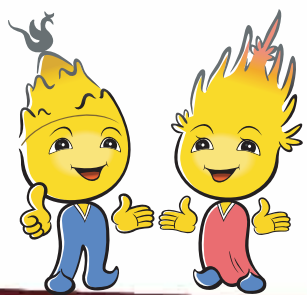
110개가 넘는 프로그램 중 빼놓지 말아야 할 것 하나는 공주시내에서 펼쳐지는 ‘웅진성 퍼레이드’이다. 백제문화제의 긴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이 퍼레이드를 본 관람객들은 상상 이상의 큰 규모에 놀라고, 퍼레이드 출연팀의 화합과 일사불란한 공연 연출에 매료될 것이다. 웅진성 퍼레이드는 백제의 정신과 찬란한 문화를 바탕으로 한 주제와 이야기가 있고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흥겨운 축제의 장이다. 매년 읍·면·동별로 주민들이 하나로 화합해 오랜 준비 끝에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선사하는 각종 퍼포먼스가 버무려진 신나는 퍼레이드이다.

10월 2일 오후 7시에는 금강신관공원 주무대에서는 ‘백제 영원하라’를 주제로 한 공연이 펼쳐지면서 백제문화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이날 폐막식에서는 자원봉사자, 어린이, 관람객 등 인터뷰 영상이 담긴 ‘영상 하이라이트’ 상영과 지역 전통예술(국악, 무용, 합창, 연희, 기악 등) 단체 합동공연이 함께하면서 폐막의 아쉬움을 달랠 예정이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박영문 대전일보 기자>

## ‘찬란한 백제와 만나는’ 110개 프로그램 정림사지 박물관서 ‘귀문의 부활’ 첫 선 사비도깨비 테마 체험·난장 등 다채 23일 전야제... 금강둔치서 불꽃쇼

### 주요 행사

- 고천제
- 혼불봉송
- 팔충제
- 백제대종 타종
- 삼신제
- 교향악단 콘서트
- 가수 축하공연
- 씨름대회
- 백제기악 미마지 탈출공연
- 마당극
- 4대왕 추모제
- 락페스티벌
- 웅진판타지아
- 사비성의 메아리
- 백제대왕제
- 로컬푸드 요리대회
- 한·일 대신 페스티벌
- 황산벌전투 재현
- 백제무사 시범
- 퓨전 두드림 공연
- 공녀제
- 베트남 전통공연
- 인절미 축제
- 공주아리랑 경창대회



부여읍 석탑로에서 펼쳐질 백제역사문화행렬의 한 장면. <사진제공=부여군>

아름다운 추억이 머무는 곳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더 아름답습니다.  
백양관광호텔로 오십시오.

Beautiful Baeg Yang Hotel

백양사 입구

##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의 식사업무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http://www.baegyanghotel.co.kr/ | 예약 및 문의 | 061-392-2114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 대형 웨딩홀 준공

◆ 400석 대면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고향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